김진무의 중국불교의 고승들 ⑪ 천태(天台) 지자대사(智者大師) 지의(智顗)

▶ 한줄 요약
천태 지자대사가 제창한 천태학은 인도나 서역의 불교와는 본질적인 차별을 이루는 중국불교의 본격적인 출발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천태학으로 중국불교 본격 출발 이뤄

중국역사에서 가장 복잡했던 남북조의 분열된 시기는 수(隋)의 문제(文帝)에 의하여 다시 통일되면서 종식되었다. 이는 서진(西晋)의 멸망(317) 이후 약 260년이 지난 이후이지만, 수대(隋代, 581~619)는 양제(煬帝)의 대운하 건설과 고구려 침공 등의 원인으로 40년이 안 되어 멸망하였다. 그러나 짧은 수대에 중국불교는 사상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이는 수조(隋朝)를 세운 고조(高祖) 문제(文帝, 楊堅)의 불교부흥정책 덕분이고, 또한 남조와 북조에서 서로 다른 발전을 이룬 불교학을 통합시켰던 것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수를 세운 문제는 정치적인 상황으로 동주(同州: 현재 陝西省 大禮 일대) 반야니사(般若尼寺)에서 태어나 13세까지 비구니 지선(智仙)이 양육하였다. 이러한 인연으로 문제는 자신이 황제의 지위에 오른 것은 부처님의 은혜라고 자주 말하였다고 한다. 그에 따라 문제는 즉위 초년인 개황(開皇) 원년(581)에 북주 무제(武帝)의 폐불(573~577)로 초토화된 북방의 불교회복을 위해 "출가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수를 헤아려 비용을 제공하고, 경전과 불상 등을 마련하라."라는 조서를 반포하였고, 또한 개황 10년(590)에는 "모든 사도(私度) 승니(僧尼)들의 출가를 허용"한다는 조서를 내려 〈속고승전(續高僧傳)〉에 따르면 사도의 승니 50여 만 명이 동시에 수계하였다고 한다. 또한 도선의 〈석가방지(釋迦方志)〉 권 하에 따르면, 문제의 재위 20년 동안 이 승려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3792개소의 사찰을 건립하였다고 한다.

문제는 승려의 출가와 사찰의 건립에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불교학의 진흥에도 커다란 관심을 갖고 개황 12년(592) 제도(帝都)에 각 분야의 학승을 초빙하여 열반중(涅槃衆)·지론중(地論衆)·대론중(大論衆)·강율중(講律衆)·선문중(禪門衆)의 '오중(五衆)'을 세웠고, 다시 전국의 교화조직으로 '이십오중(二十五衆)'을 건립하여 고승 25인을 모셔 '중주(衆主)'로 삼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은 북조의 전통인 '승관제'의 일환이었고, 이를 통하여 불교를 관리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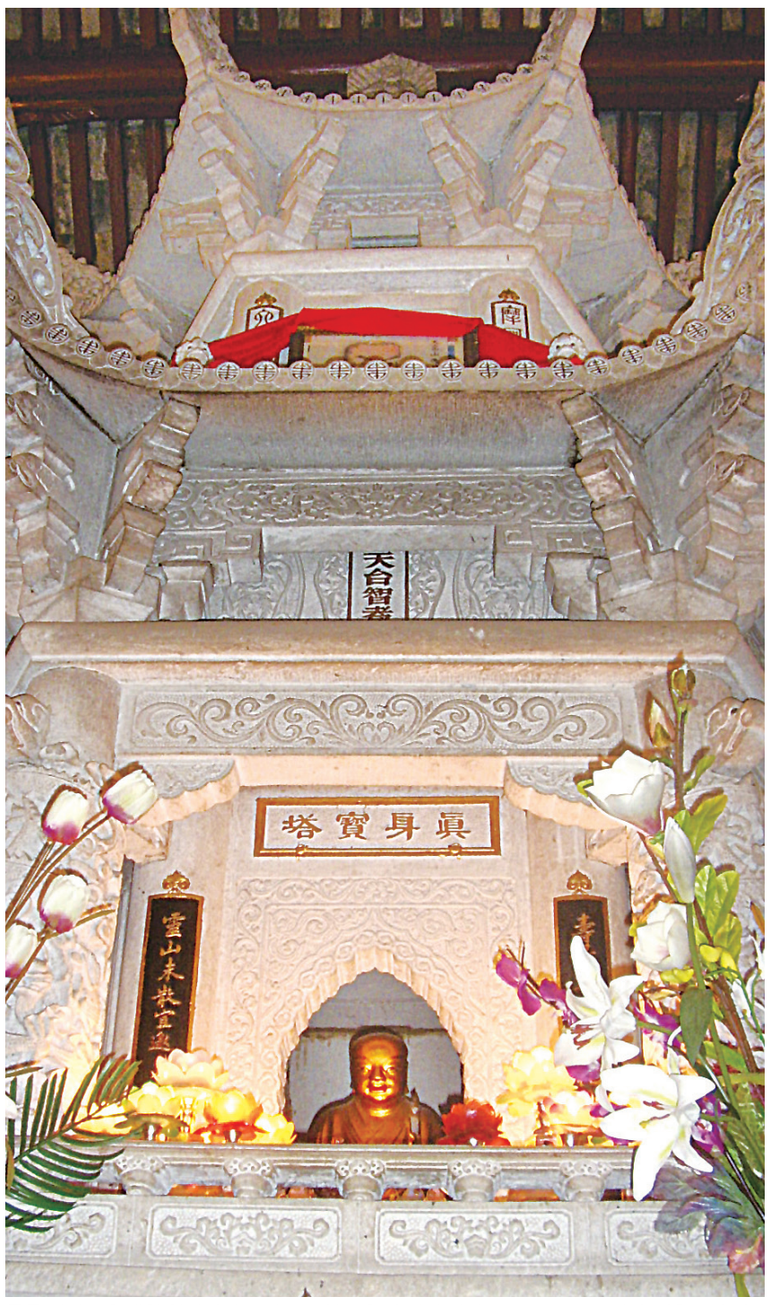
한편 사상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문제가 중국을 다시 통일한 이후 남·북으로 크게 양분된 불교의 교학을 통합할 필요성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가장 두드러진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 바로 천태 지의(智顗, 智者大師, 538~597)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지의대사는 천태종(天台宗)을 개종(開宗)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그의 사상으로부터 중국불교학은 커다란 전환을 이룬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간략하게 지의대사의 생애와 사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천태종의 종조로서 지의대사는 다양한 문헌에 그의 전기가 실려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수천태지자대사별전(隋天台智者大師別傳)〉과 〈속고승전〉, 〈경덕전등록〉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지의는 남조의 양(梁) 대동(大同) 4년(538) 7월에 형주(荊州) 화용(華容: 현 湖南 華容縣)에서 출생하였으며, 자(字)는 덕안(德安), 속성은 진(陳)씨이다. 부친은 양의 관료였지만, 당시 반란이 일어나 집안이 몰락하고 양친을 잃게 되자 18세에 상주(湘州: 현 湖南 長沙市)의 과원사(果願寺)에서 출가하였으며, 혜광(慧曠)율사로부터 계율을 수

18세 과원사서 출가 20세구족계
천태종 開宗해 중국불교 대전환

학하여 20세에 구족계를 받았다. 그 후 천가(天嘉) 원년(560) 혜사(慧思)대사가 북방으로부터 남하하여 광주(光州: 현 河南 光山縣) 대소산(大蘇山)에 머문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문하를 찾아 '사안락행(四安樂行)'을 수학하였다. 광대(光大) 원년(567) 혜사대사가 남악(南嶽)으로 가면서 그에게 금릉(金陵: 현 南京)에서 법을 펼치라고 부촉하자 금릉의 와관사(瓦官寺)에 머물면서 선법(禪法)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2년 후에 〈법화경제(法華經題)〉를 강의하기 시작하여 새로운 종의(宗義)를 수립하였다고 한다.

와관사에서 8년간 머무는 시기에 또한 〈대지도론(大智度論)〉과 〈차제선문(次第禪門)〉 등도 강설하였으며, 〈육묘법문(六妙法門)〉 등을 찬술하였다고 한다. 이후 태건(太建) 7년(575) 금릉을 떠나 천태산(天台山)에 처음으로 입산하여 북쪽 산봉우리에 가람을 창건하였고, 또한 북쪽 화정봉(華頂峯)에서 홀로 두타행을 닦으며 주야로 선관(禪觀)을 하였다. 지덕(至德) 3년(585) 3월에 다시 금릉으로 와서 영요사(榮曜寺)에 주석하였다. 이 당시에 진(陳)의 황태자의 청으로 태극전에서 〈대지도론〉, 〈인왕반야경〉 등을 강의했으며, 혜항(慧恒), 혜광(慧曠), 혜변(慧辨) 등의 명승들이 참여하여 토론을 하였다고 한다. 후에 광택사(光宅寺)로 옮겨 〈법화경〉을 강의하자 제자 관정(灌頂)이 기록하여 〈법화문구(法華文句)〉를 완성했다. 이후에 지자대사가 강의하면 관정이 필록하여 책으로 편찬하게 된다. 그러나 진이 망하자 여산(廬山)으로 은거하였다.



중국 절강성 천태현 천태산에 조성되어 있는 천태 지의 진신보탑. 사진=정운 스님 제공

개황 9년(589) 진이 멸망하자 고조 문제는 다음해 정월 지의에게 불법을 부흥시키고, 불법에 의하여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조서를 보냈으며, 개황 10년(591) 진왕(陳王)으로 부임한 양광(楊廣: 煬帝)이 양주총관(揚州總管)이 되어 여산으로 사신을 보내 간청하자 지의는 양주로 와서 보살계를 수여하였고, 양광이 문제에게 청하여 '지자대사(智者大師)'라는 호를 받게 되었다. 다음해 지자대사는 고향 형주로 돌아갔으며, 당양(當陽) 옥천산(玉泉山)에 옥천사(玉泉寺)를 창립하였고, 이후 2년 동안 〈법화경현의(法華經玄義)〉와 〈마하지관(摩訶止觀)〉을 강의하였다.

개황 15년(595) 봄에 양광의 청에 의하여 다시 양주로 와서 〈정명경소(淨名經疏)〉를 찬술하였는데, 병을 얻어 천태산으로 돌아갔다. 이후 2년 후(597)에 병환 중에도 제자들에게 〈관심론(觀心論)〉을 구수(口授)하였으며, 10월 양광의 청으로 양주로 향하다가 석성사(石城寺)에서 세수 60세, 법랍 40세로 입적하였다.

지자대사의 저술은 상당히 방대하다. 그 가운데 지자대사가 직접 찬술한 것은 일부분이며, 대다수는 제자인 관정이 집록한 것이다. 그 가운데 〈법화경현의〉, 〈법화경문구〉, 〈마하지관〉을 '천태삼대부(天台三大部)'라고 칭하며, 또한 〈관음현의(觀音玄義)〉, 〈관자의소(觀者義疏)〉, 〈금광명경현의(金光明經玄義)〉, 〈금광명경문구(金光明經文句)〉, 〈관무량수불경소(觀無量壽佛經疏)〉를 '천태오소부(天台五小部)'라고 칭한다.

이상의 지자대사 생애로부터 보자면, 지자는 본래 남조 출신이지만, 수조(隋朝)가 건립되고 문제와 양제가 적극적으로 법을 청하자 그에 응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앞에서 언급한 새로운 왕조를 위해서 남북으로 양분된 교학을 통합

'五時八教'로 통합 교상판석 통섭
석성사에서 60세법랍 40세 입적

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도 삼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남북조시기에 불교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불성(佛性)에 대한 논의였고, 이 논의는 점차 교상판석(教相判釋)으로 전개되었다. 당시 불교인들은 서역으로부터 전래하는 불법에 서로 다른 사상들이 혼재하고 있음을 발견해 내고, 그를 부처님의 일대기에 배대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를 '교상판석'이라고 칭한다. 이 교상판석은 '불성'에 대한 자파의 주장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논증방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교상판석은 수대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남방에서는 세 부류, 북방에서는 일곱 부류, 뜻으로 세분하면 수많은 종류가 있었다[南三北七, 義成百家]"라고 칭하듯이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었고, 통치자, 특히 불교를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려는 수대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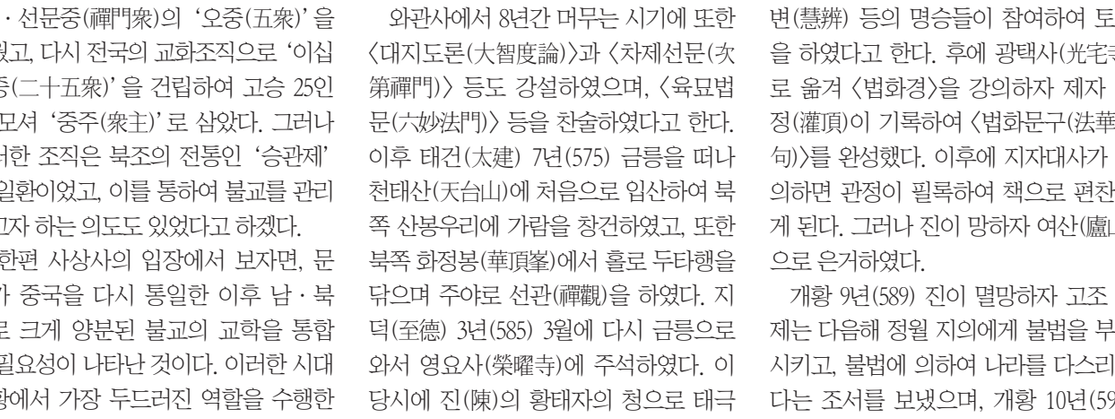
천태 지자는 바로 당시에 유행하였던 제반 불교학설을 법화(法華)와 반야(般若)사상을 중심으로 '오시팔교(五時八教)'로 통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경덕전등록〉의 전기에서는 '오시'를 "첫째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위없는 도를 이루시자 바로 상근기인 보살들을 위하여 설한 화엄시(華嚴時), 둘째 소승의 근기를 위하여 설한 아함시(阿含時), 셋째 치우침을 꾸짖고 작은 것을 무찔러 큰 것을 찬탄하고 원만함을 칭찬하기 위해 설한 방등시(方等時), 넷째 상(相)을 소탕하고 집(執)을 쓸어버리기 위해 설한 반야시(般若時), 다섯째 방편을 회통하여 실제로 돌아감으로써 삼승의 사람들과 모든 중생까지 성불한다는 수기를 주기 위해 설한 법화열반시(法華涅槃時)이다."라고 한다. 또한 '팔교'에 대해서는 "화의사교(化儀四教)의 돈(頓)·점(漸)·비밀(秘密)·부정(不定), 화법사교(化法四教)의 장(藏)[생멸(生滅), 사제(四諦)]·통(通)[무생(無生)]·별(別)[무량(無量)]·원(圓)[무작사제(無作四諦)는 오직 법화(法花)의 원리(圓理)이고, 내지 생산업(生產業)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색(色), 하나의 향(香)이 실상(實相) 아님이 없음]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오시'와 '팔교'는 결국 당시에 논해지고 있었던 모든 교상판석을 통섭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자대사는 이를 단순하게 통섭한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자신의 논리로 새로운 사상을 창출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사실상 천태학은 상당히 방대하고 폭이 넓기 때문에 한정된 지면에 그를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가장 독특하고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성구선악(性具善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정인(正因)·연인(緣因)·요인(了因)의 삼인이 모두 호구(互具)한다는 논리로부터 도출된 것이고, 또한 공(空)·가(假)·중(中)의 삼제가 상즉호구(相卽互具)하고 원융무애하다는 '삼제원융(三諦圓融)' 설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또한 수행론에 있어서는 '지관병중(止觀幷重)', '정혜쌍수(定慧雙修)'를 강조하고 있다. 그에 따라 천태종의 불성론을 흔히 '성구론(性具論)'이라고 칭하게 된다.

천태 지자대사가 제창한 천태학은 인도나 서역의 불교와는 본질적인 차별을 이루는 중국불교의 본격적인 출발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천태학이 출현함으로 화엄학도 나타났고, 나아가 천태학을 바탕으로 중국선종이 배태되었다고까지 평가할 수 있다. 이로부터 천태 지자대사의 중대한 사상적 의의를 논할 수 있다고 하겠다.

〈前 동국대 불교문화원 부교수〉

국내최초·벤처기업
한국스틸 고건축
공장에서 직접 제작 | 지상에서 단청 작업 | 현장 조립 설치



원적산 법명사 스틸 일주문 완공 사진과 작업 현장

스틸 고건축의 장점

1) 용접을 하지 않는다. (용접의 단점 : 장마철에 습기로 인한 녹 발생)
2) 스틸은 결로가 생기지 않는다. (방음과 결로에 대한 단열)
3) 스틸은 지진과 화재에 강하다.
4) 11포, 9포까지 표현 할 수 있다. (국내 최초 벤처기업 인증)
5) 타 자재에 비해 공사비가 40% 저렴, 공기단축 (23년 축적된 기술력)
6) 좀 더 세련되고 화려하며 웅장하게 표현할 수 있다.

◉ 국내 최초 대철장 ◉ ◉ 산신각 2m×4m, 3m×4m 주문제작 ◉
목재대비 유사도 90%이상 * 바늘 끝같은 정교함 * 상담문의 010-5023-5050

종도모집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내 외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과 간부스님에 한하여 추대장 및 위촉장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개인 사암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 총 본 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
■ 서울 총무원 : 전화 02)739-4780